

‘구미호면’ 강신호 감독 “판타지 액션 첫 도전 사랑 감사”

‘울인’→ ‘타짜’→ ‘상속자들’ 연출 주목

“입사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장르”

“한국 드라마 저변 두터워졌으면”

“방송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해보고 싶은 장르였는데 그때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나라 많은 방송 종사자들이 애써오신 덕분에 이런 도전도 할 수 있었다.”
지난 3일 종영한 tvN 수목극 ‘구미호면’ 강신호 감독은 최근 뉴시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도 많은 한국적 판타지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들 좋은 성과를 내서 한국 드라마의 저변이 한층 두터워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미호면’은 도시에 정착한 구미호와 그를 쫓는 프로듀서의 판타지 액션 로맨스 드라마로 남자 구미호의 사랑 이야기라는 독특한 소재로 주목받았다.

로 보낼 수 있는 것 같다”며 종영 소감을 전했다.
아름다운 영상과 다채로운 화면이 화제가 됐다. 그는 “판타지를 판타지처럼 보이게 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다. 배우, 분장, 미술, 의상, 장소, 액션, CG가 도와주지 않으면 연출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다행히 좋고 헌신적인 스태프들을 만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찬했다.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으로는 4부 엔딩으로 이어지는 부분과 8, 9부 어둡시니(심소영)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꼽았다.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됐고 시각화하는 데 공을 들인 부분이 다.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좋은 퀄리티의 장면들이 된 것 같다.”

남자 구미호 변신으로 주목받은 이동욱, 김범에 대해서는 연신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는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해서 캐스팅했는데 이 정도로 잘 맞을 줄 몰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동욱은 촬영장 내 ‘분위기 메이커’였다. “동욱이는 워낙 쾌활한 스타일이라 동욱이를 필두로 다들 즐겁고 신나게 촬영했다.”

여자 주인공 조보아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남자 주인공들 사이에 있는 평범한 인간이라 본인이 버티지 않으면 존재감이 떨어질 수 있다”며 “특히 이무기가 빙의하는 연기는 난이도가 있는 연기였는데 훌륭하게 해냈다”고 극찬했다.

“본인은 잘 모르는 듯 하지만 사극이나 극성이 강한 연기에 큰 감점을 갖고 있는 배우다. 액션에도 욕심이 많고 재능이 있는 편이라 이번 드라마를 계기로 장르물 액션물을 이어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이무기”로 화제가 된 이태리에 대해서도 “기존의 빌런이나 이무기라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미소년 이미지를 원했다”며 “그러면서도 난이도 있는 연기를 소화하는 것이 관건”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태리는 연기의 기초가 탄탄한 친구”라며 “이무기 배역은 오버하면 과하고 가라앉으면 밋밋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누가 해도 참 어려운 배역인데 이연과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고 단단하게 버티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고 밝혔다.

황희, 김용지 등 조연 배우들에 대한 칭찬도 잊지 않았다. “신주는 가장 많은 배역과 부딪힐, 농구로 치면 불을 운반하는 가드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그런 면에서 오디션에서 가장 안정적인 연기를 보였던 황희라는 배우를 캐스팅했고 역시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줬다.”

김용지에 대해서는 “아직 다들 어지르지 않은 부분이 많은 친구지만 기우리

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소화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기대보다 훨씬 잘해줘서 너무 기쁘다”고 평했다.

임규형, 임기홍, 선우재덕, 심소영 등 화제가 된 특별출연진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강 감독은 “이규형은 동욱이와의 인연으로 사포 역으로 출연하게 됐다. 특별출연이라 하기에 분량이 많고 액션이 있어서 한여름 불뿔더위에서 정말 고생 많았다”며 “마지막 이무기와 대결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저도 아쉽고 배우분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기홍에 대해서는 “캐스팅 디렉터를 통해 추천받고 ‘인간수업’이란 작품을 보고 점차 역으로 모셨다”며 “현장에 있던 스태프, 배우들이 이분의 연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선우재덕 형님은 저랑 거의 15년 전 아침드라마를 하고 처음 만났다. 쉽지 않은 역을 흔쾌히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며 “여주인공의 아버지이며 왕이자 이무기에게 몸을 빼앗긴 설정이라 분장만 몇 시간을 해서 참 고맙고 죄송했다”고 전했다.

“늑장 아줌마”로 화제가 된 ‘어둡시니’ 심소영의 경우 “저와 한우리 작가의 전작 ‘작은 신의 아이들’에 나왔는데 개성 있는 외모와 연기력으로 처음 어둡시니를 쓸 때부터 이분으로 짐을 해봤었다”며 “회차로는 2회 분량이지만 몇 달을 전국을 떠돌며 찍느라 고생 정말 많이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우리 작가에게 전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2년 7개월의 여정을 함께 해준 한 작가가 너무 고맙고 대견하다”고 깊은 신뢰를 드러냈다.

“드라마 제작에도 코로나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드라마를 보여드리는 일뿐이라 더욱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서 보답하고 싶다.”

비·김태희 자택에 70대 노인들 침입...“빛값아라” 주장

비 아버지 떡집 운영 당시 서로 알던 사이

“쌀값 달라”며 대문 부수고 마당 들어감



‘빛투’를 주장하며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씨 부부 자택 문을 부수고 침입한 70대 2명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

는 남성 A(79)씨와 여성 B(73)씨에게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씨 부부 집에 찾아가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정씨의 아버지 C씨가 약 20년 전 떡집을 운영할 당시 쌀 외상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은 돈을 갚으라며 C씨에게 민사소송도 걸었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3명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당시 B씨는 “쌀값 좀 값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밀었고, A씨는 등으로 문을 수 차례 밀어 대문 개폐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문 입구까지 들어갔으며 A씨는 마당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문이 저절로 개방돼 안에서 열어준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유 부장판사는 고장난 개폐기와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나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양측이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고 A씨와 B씨가 현재 고향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병헌의 모든 것 담은 책 ‘배우 이병헌’ 초판 매진

배우 이병헌을 집중 조명할 책 ‘배우 이병헌’이 초판이 매진되어 2쇄에 돌입한다고 백은하배우연구소가 16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출간된 이 책은 배우 이병헌을 실현체 삼아 작성한 책이다. 300페이지에 데뷔 30주년

를 맞은 배우 이병헌의 모든 것이 담겼다.

배우의 진화, 그리고 이병헌 본인 및 다양한 동료의 인터뷰를 포함해 1년 간 수집하고 분석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다.

씨네21 기자 출신인 저자 백은하가 혼자 기획, 집필, 편집, 제작한 1인 출판물이다.

백은하는 국내 처음으로 ‘배우 연구소’를 세우고 ‘넥스트 액터 박정민’, ‘넥스트 액터 고아성’을 출간한 바 있다.

여자친구, 美 ‘그래미 뮤지엄’과 인터뷰...K팝 걸그룹 최초

음악 산업 종사자들과 음악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인터뷰



그들 ‘여자친구’가 미국 ‘그래미 뮤지엄(GRAMMY Museum)’의 인터뷰 코너 미니 마스터클래스(Mini Masterclass)에서 음악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16일 쏘스뮤직에 따르면 ‘그래미 뮤지엄’은 15일(현지시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자친구의 미니 마스터클래스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음악가를 꿈꾸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니 마스터클래스는 아티스트를 포함한 음악 산업 종사자들과 음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인터뷰 시리즈다.

여자친구는 K팝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미니 마스터클래스에 초대됐다.

인터뷰는 ‘그래미 뮤지엄’ 익스피리언스 프루덴셜 센터의 아티스트 및 프로그래머 마크 콘클린(Mark Conklin)과 진행됐다.

여자친구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최근 음악적 영감을 어디에서 얻었는지,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을 향한 조언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하는 일(음악)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였다.

이에 소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고, 항상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소원은 “남들과 구분될 수 있는 본 인간의 뚜렷한 색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하는 일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 질문에 예린은 “다양한 콘셉트를 팬분들께 보여 드릴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은하는 “5명의 든든한 가족 같은 멤버들이 있다는 게 가장 좋고, 항상 힘이 많이 된다”며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했다.

여자친구는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도 전했다.

유주는 “무언가를 잘 해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실수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좌절할 필요도 없다”며 “부족한 점을 연구하되, 자신이 가진 장점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원은 “연말에 다가올 무대들을 멋지게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 같다”고 답했고, 예린은 “좋은 기회가 된다면 멤버들 한 명씩, 새로운 곡으로 앨범을 구성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여자친구는 최근 정규 3집 ‘화:발푸르그스의 밤(Walpurgis Night)’으로 컴백해 타이틀곡 ‘마고(MAGO)’로 한층 성장한 음악적 역량을 선보였다.

회사, 임정화 ‘호피무늬’ 피쳐링+뮤비 출연...환불원정대 의리

3년만에 발매...오는 22일 오후 6시 공개

가요계의 대표 디바 임정화와 화사가 다시 뭉친다.

임정화는 오는 22일 오후 6시에 전 음원사이트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호피무늬’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특히 임정화의 신곡 ‘호피무늬’에는 그룹 ‘마마무’의 화사가 피쳐링으로 참여한 데 이어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해 눈길을 끈다.

회사는 지난 15일 진행된 임정화

의 ‘호피무늬’ 뮤직비디오 촬영을 함께했다.

타고난 무대 장악력과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두 디바의 만남은 이날 현장에서 최고 의니지를 자랑했다는 후문이다.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 ‘환불원정대’의 ‘돈 터치 미(DON'T TOUCH ME)’를 통해 이미 음색 케미를 증명하는 두 사람이 보여줄 새로운 조

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정화의 이번 컴백은 지난 2017년 발매한 정규 10집 ‘더 클라우드 드림 오브 더 나인(The Cloud Dream of the Nine)’ 이후 3년 만이다.

신곡 ‘호피무늬’는 한층 더 성숙한 임정화만의 독보적인 스타일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집대성한 곡이라는 설명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뉴시스